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성소수자 인권의 달(PRIDE MONTH)에 대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서

"성소수자 인권의 달은 성소수자(LGBTQ) 공동체와 모든 뉴욕 주민에게 특별한 달이며 올해 스톤월(Stonewall) 50주년을 맞아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를 개최하게 되어 모든 뉴욕 주민에게 축하하고 기념할 일이 가득합니다.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주도 활동의 평등 결혼법과 성 표현 비차별 법(Gender Expression Non Discrimination Act, GENDA) 통과에서 성전환자의 중요 보호 조치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와 싸움까지, 뉴욕은 성소수자(LGBTQ)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 미국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를 위한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얻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뉴욕주에는 성소수자(LGBTQ) 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식의 차별적 법안이 존재합니다. 동성 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포용, 관용의 상징인 그들의 고향 뉴욕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성소수자(LGBTQ)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로 기소된 누군가가 자신의 동성애 혐오나 성전환 혐오를 합법적 정당방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척 불쾌한 일입니다.

저는 어제 뉴욕주의 구식 법안으로 낙담해온 뉴욕 주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대리모 금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공황" 정당방위는 이번 입법 심의회가 종료되기 전 완전히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뉴욕 주민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